日, 모두에 열린 베트남사찰 화제

와라쿠지, 베트남이주민 안식처
인권보호 · 인식개선 활동 진행
일본인도 교류…공동기도회 등
모두에게 열린 도량 되길 발원

박영빈 객원기자


와라쿠지에 모여 법회중인 재일 베트남 불자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국제화 시대, 다양한 불교전통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각자의 전통을 따르는 사찰들이 세계 각국에 세워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 중 일본에 세워진 베트남 사찰이 재일 베트남인들은 물론, 현지 일본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화제다. 4월 24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고베시에 소재한 베트남 사찰에 대해 보도했다.

고베시 나가타구의 주택가에 소재한 베트남 사찰 '와라쿠지(和樂寺)'. 붉은색 연등과 갈색으로 칠해진 베트남식 입구가 사찰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와라쿠지는 현재 일본 전국에 산재한 10곳의 베트남 불교 사원 중 하나로 2012년에 건립됐다. 와라쿠지의 주지 틱덕치 스님은 "건립당시 일본의 베트남 사찰은 도쿄 근교에만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간사이 지방에도 사찰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개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2011년 일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불교신자들과 뜻을 함께하는 일본인들의 보시로 2층 목조주택 2채를 구입, 약 반년에 걸쳐 사찰로 개축했다. 1층은 공양간을 비롯해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2층은 법으로 2미터 높이의 석가모니불상을 본존으로 관음지장의 3존불을 모셨다. 또 주변 민가의 소음문제를 생각해 법당의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방음장치가 설치했다. 틱덕치 스님은 "불상을 비롯해 법당의 장엄구와 법구 등을 모두 베트남에서 하나씩 이운해 왔다"며 일본 속에서 베트남 사찰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틱덕치 스님은 "와라쿠지는 매일 재일 베트남인들이 사찰에 모여 향수를 달래는 장소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간사이 지방을 중심을 2천 명이 넘는 베트남인들이 찾아온다"고 전했다. 최근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실직하거나 살 집이 없어진 베트남인들이 사찰에서 함께 살고 있다. 재일 베트남인들에게 이곳은 제 2의 집과 같은 장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스님은 "나 역시 유학생으로 일본에 들어왔다. 함께 들어와 일본에서 일하던 친구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직접 보고서 동포들을 돕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다. 나 역시 여러 고충을 직접 겪었기에 재일 베트남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한다"고 밝혔다. 실제 와라쿠지는 온오프라인으로 재일 베트남인들의 권익을 보호, 인식개선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와라쿠지는 사찰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을 위한 기도법회나 천도재를 집전하고 일본불교계와 교류를 통해 베트남 불교를 일본인들에게 소개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국 공동기도회나 교환법회 등의 법석도 열고 있다. 또 매월 무료 불교강좌를 진행해 교학적인 포교활동도 하고 있다. 틱덕치 스님과 함께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는 일본 스님들은 "일본과 베트남 양국의 사정에 밝아 두 나라에 모두 적합한 설법으로 틱덕치 스님의 강좌는 항상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틱덕치 스님은 "와라쿠지는 베트남과 일본, 모두에게 열린 도량이다. 대중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에 언제나 편안하게 발걸음을 옮겨주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교황청,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

교황청 종교 대화위, 5월 1일
"코로나19 · 전쟁속 역할 해야"

전 세계 불교도들이 2022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는 가운데, 이웃 종교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있다.

헤럴드 말레이시아 등 외신들의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로마 교황청 종교간 대화위원회는 5월 1일 '불교와 기독교가 함께 희망의 회복 속에 서다' 라는 제목의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메시지에는 의장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 추기경과 스리랑카 바둘라 교구의 인두닐 자나카라트네 코디튜와쿠 칸카나말라지 등이 서명했다.

교황청 관계자들은 "우리는 인류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이 시기에 글을 쓴다"며 "3년 연속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 위협에 내놓여 있다. 또 생태학적 위기와 빈번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와 광범위한 희생을 유발하는 전쟁까지 겪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들은 '인류가 과학과 사상의 발전을 분명히 이루고 있지만 평화에 있어서는 후퇴하고 있다' 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애석하게도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극에 대응해 연대와 연합의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물질적 부를 쫓고 정신적 가치를 포기하면서 인간은 도덕적 쇠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황청 관계자들은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인들이 화해와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한편, 인류를 지속가능토록 종교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들은 "종교인들은 숭고한 원칙을 지탱함으로써 인간들이 많은 고통을 야기하는 정신적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의 등불이 돼야 한다"며 "종교의 말씀은 결코 폭력을 답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의 연민의식과 지혜는 다양한 사회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영감을 준다"며 "교황의 말처럼 희망은 우리에게 항상 해답을 주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일하자"며 "희망으로써 현재의 역경을 함께 해쳐가자"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미얀마 군부, 불교계 공격 논란

반군부성향 출가자 사상 이어져
마을 공격 과정 스님 33명 사망
전국서 40여 스님 구금 알려져



군부의 폭력사태에 평화시위를 벌이는 스님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지난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 군부가 불교계에 대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음이 밝혀졌다. 4월 27일 'RFA 미얀마',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등의 외신은 반군부성향 출가자와 불교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와 살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군부의 쿠데타 이후, 평화시위가 무력투쟁으로 격화되면서 미얀마 전국에서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의 무차별 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군부가 사가잉(Sagaing) 북부 지역의 한 마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스님과 3명의 민간인을 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됐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부는 최근 며칠 동안 9개 마을에 불태웠으며 그 중 4개는 전소된 것으로 전했다.

전소된 마을의 한 주민은 "우리 마을 인근에서 군부와 저항군의 전투가 있었다. 저항군이 후퇴한 후 군부가 저항군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마을들에 불을 질렀다"며 참상을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 지역에서 지난해 동안 40개 이상의 마을에서 약 3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한 저항군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부는 마을사람들에게 한 마디 경고도 없이 포격을 가하고 방화를 저질렀다. 한 마을의 경우 스님이 민가에 방화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현장에서 총살했다"고 말했다.

RFA미얀마는 "군부는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군부 무정단체의 공격으로 33명의 스님들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다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대신 자체적인 보도자료와 현지 언론들을 분석하여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38명의 비구스님과 1명의 세얄레이(여성출가자)가 군부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출가자들에 대한 살해와 체포에 대한 외신의 질문에 미얀마 군부는 "출가자들을 체포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승려를 가장해 활동하는 테러리스트에 한해서만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부가 출가자들을 살해한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RFA 미얀마는 자체 기록에 따르면 최근에도 5명의 스님들이 군부에 의해 체포, 혹은 살해 됐으며 미얀마 전국에서 40여 명의 스님들이 구금되어 있다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친군부적 행보를 보이는 스님들이 군부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일부 스님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실제 일부 전투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여성은 "살해당한 스님들과 민간인들은 친군부 성향의 스님들의 묵인하에 일어난 일이다. 군부는 불교를 이용해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만달레이 승가연합의 아신 라자담마 스님은 "진정한 승려는 군사훈련에 참여하거나 군대의 정보원 역할을 해선 안된다"며 이는 율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역사적으로 출가자의 정치참여는 정의를 위한 비폭력적인 행동이었다"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출가자들은 평화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명상 앱, 집단 · 개인 지혜 공유의 장"

마음챙김 전문가 미트라 마네쉬 인터뷰



명상 애플리케이션(앱)이 보편화 된 현대사회에서 앱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UCLA 교지 데일리브루인(dailybruin)은 4월 28일(현지시간) 마음챙김 전문가이자 명상 앱 '이너맵' (Innermap)의 개발자 미트라 마네쉬(Mitra Manesh · 사진)와 인터뷰를 갖고 명상 앱의 발전 방향과 올바른 사용법 등을 소개했다.

마네쉬는 "마음챙김명상 앱과 같은 플랫폼들은 불교의 지혜와 새로운 기술 산업을 융화시킨 산물"이라며 "누구든지 몸과 마음의 감각을 탐구하기 위해 잠시 명상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명상 앱은 사람들에게 체험과 함께 관심을 환기시키는 유용한 입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마네쉬는 그것들의 효과가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더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네쉬는 "사람들은 앱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본다. 혼자서는 절대 명상을 시작하지 않을 사람들도 앱을 통해 명상을 시작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집단과 개인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은 개개인을 연결한다"고 했다.

마네쉬는 특히 이너앱을 사용자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마음챙김명상 앱이 인플루언서들이 말하는 특권화된 특징 묘사가 청취자들을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네쉬는 "기술 자체에는 의식이 없다"라며 "우리의 의식만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또는 해칠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IT PLUS + ONE
ELSWIVER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정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회원을 관리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보안서비스 개선
+ 시스템 보안관리
+ 서버운영 및 관리
+ 업무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PC 유지보수

http://www.elswiver.com http://www.itplusone.com
Venture for Tomorrow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IT PLUS + ONE 으로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IT PLUS + ONE 은 (주) 엘스위버의 정보보안 및 전산 통합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ELSWIVER IT PLUS + ONE
©Copyright 2018 ELSWIVER co.Ltd. ALL RIGHT RESERVED